

交感丹의 氣鬱症 治療에 關한 文獻 研究 : 水升火降을 중심으로

林永桓, 鞠潤範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科 方劑學教室

ABSTRACT

The Oriental Medical Literature Relating to Treatment of *Gyogamdan* in Ki Stagnation : focused on *Suseunghwagang*

Young-Hwan Lim, Yoon-Bum Kook

Dept.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The Oriental Medical Literature Relating to Treatment of *Gyogamdan* in Ki Stagnation : focused on *Suseunghwagang*

The normal drift of a current *Ki* can maintain a function of body. An abnormal drift of a current *Ki* which is called a *Ki Stagnation* by lots of thinking or agony gets to a various disease syndrome. A *Ki Stagnation* is similar to a mental stress disease. It is a common disease for us to contact easily, so, it is very valuable to study.

Gyogamdan which is composed of *Cyperi Rhizoma* L. and *Poria cum Radix pini* has been used by basic prescription of a symptom related to all kinds of *Ki* disease, after being recorded to *Hongssijibhumbang* first. *Gyogamdan* has an ability to regulate *Ki* , through

• 교신저자 : 국윤범

• 주소: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번지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 Tel : 033-730-0661 E-mail: kook@sangji.ac.kr

• 접수 : 2008/ 06/ 07 1차수정 : 2008/ 06 /09 2차수정 : 2008/ 06 /13 채택 : 2008/ 06/ 18

'Suseunghwagang-centric'(Ascending the Water and Descending the Fire) in body.

Gyogamdan compares to *Gamijajooowan* which can treat eyes dizzy by ascending heat and *Gongjindan* which can regulate lack of basic Ki through 'Suseunghwagang-centric'.

It is general for the herb and acupuncture to give medical treatment coming together in oriental medicine, so do *Gyogamdan* and *Sagwan* Acupoints.

Gyogamdan in composition *Cyperi Rhizoma* L. and *Poria cum Radix pini* and *Sagwan* Acupoints in composition *Hapkok* and *T'aech'ung* get to synergistic effects. Therefore, a Ki Stagnation treatment through unions of *Gyogamdan* and *Sagwan* Acupoints may have more effects than when a treatment used each one alone.

Be considered that we have to study *Gyogamdan* and *Sagwan* Acupoints carried out an experiment to set up the previous theory in future

Key word : *Gyogamdan*, *Hongssijibhumbang*, *Suseunghwagang*, Ki Stagnation, *Sagwan* Acupoints

1. 緒 論

인체 내의 모든 물질운동과 변화가 氣의 推動에 의존하므로 氣는 인체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다.¹⁾ 따라서 氣의 정상적인 운행이 있어야 생명의 유지가 가능하다.

생각이나 고민이 많아지면 氣가 한 곳으로 몰려서 운행되지 못하여 흠어지지 않는 것을 氣鬱症이라고 한다.^{2,3,4,5)} 이렇게 氣鬱症이 되면 升降이나 변화에 장애가 오게 되고⁶⁾, 다양한 질병양상으로 변화한다.⁷⁾

氣鬱症은 현대의 Stress성 질환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Stress는 신체에 가해진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한 체내의 반응과 傷害에 대한 방어반응을 의미하는데, 다양한 Stressor 중에서도 특히 精神的 인자에 의한 것이 氣鬱症과 연관이 된다.

이러한 氣鬱症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 交感

丹이다. 交感丹은 宋代 洪遵의 『洪氏集驗方』⁸⁾(1170)에 최초로 기록된 이후에 여러 醫家들에 의해 諸氣症을 치료하는 기본 처방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交感丹은 香附子和 白茯苓으로 구성되는데, 『本草綱目』에서 “得茯苓則交濟心腎.”⁹⁾이라고 하여, 心和 腎으로 표현되는 체내 水火의 交濟에 사용된다고 하였다. 香附子는 理氣解鬱 止痛調經, 白茯苓은 寧心 安神 利水하는 효능이 있는데, 이 둘을 배합하면 水升火降이라는 作用轉換을 통해 氣鬱症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方劑를 구성하게 되면 單一 藥材의 독립적인 사용의 결과가 아닌 전체의 약리작용 내에서 새로운 변화인 상승, 억제 등의 작용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氣鬱症과 같은 정신적 Stress 질환은 현대인에게 매우 흔한 질병이다.^{10,11)} 그러므로 臨床적으로 중요하여 문¹²⁾, 고¹³⁾, 엄¹⁴⁾ 등은 Stress와 氣鬱症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황¹⁵⁾, 김¹⁶⁾ 등은 실험을 통해

交感丹이 Stress 抑制作用이 있음을 研究하였다. 그러나 實驗結果만 밝혀 놓았을 뿐, 어떤 기전에 의해서 氣鬱症을 치료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氣鬱症과 交感丹의 관계에 대한 문헌 연구를 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1. 연구대상

交感丹과 관련된 『洪氏集驗方』⁸⁾, 『萬病回春』¹⁷⁾, 『本草綱目』⁹⁾, 『東醫寶鑑』¹⁸⁾, 『沈氏尊生書』¹⁹⁾, 『方藥合編』²⁰⁾, 氣鬱症과 관련된 『素問』²⁾, 『靈樞』³⁾, 『諸病源候論』⁴⁾, 『萬病回春』⁵⁾, 『丹溪心法』⁶⁾, 『古今醫統』⁷⁾, 『赤水玄珠』²¹⁾, 『景岳全書』²²⁾, 『臨証指南醫案』²³⁾, 『證治彙報』²⁴⁾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句讀와 해석

句讀는 底本을 따랐으나, 일부 저자의 견해와

다른 부분은 저자의 견해대로 하였다. 해석은 逐字번역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의역을 하였다.

3. 도표와 내용정리

도표는 저자, 서명, 내용, 저작년도를 기록하였고, 문헌들을 시대 순서에 맞게 정리하였다. 본문에서는 원문을 도표로 정리하였는데, 필요한 원문을 모두 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도표의 내용은 분석 및 고찰에서 解釋·정리하였다.

III. 本 論

交感丹을 구성하는 香附子와 白茯苓, 交感丹의 製法, 服用 時에 사용되는 降氣湯의 구성에 관한 문헌을 定理하였다. 이후 交感丹과 같은 水升火降의 기전을 가진 加味磁朱丸과 拱辰丹, 그리고 氣鬱症에 관한 문헌을 정리하였다.

1. 香附子 關聯 文獻

Table 1. The Contents of the Oriental Medical Literature relating to *Cyperi Rhizoma* L.

저자	서명	내용	저작년도
王好古	湯液本草	氣微寒 味甘 陽中之陰 無毒. 本草云 除胸中熱 充皮毛久服利人益氣 長鬚眉 後世人用治崩漏 本草不言治崩漏. 圖經云 膀胱兩脇氣妨 常日憂愁不樂 飲食不多 皮膚瘙癢癰疹 日漸瘦損 心忪少氣 以是知益氣血中之氣藥也. 方中用治崩漏 是益氣而止血也. 又能逐去凝血是推陳也. 與巴豆治泄瀉不止 人能治大便不通同意. 珍云快氣. ²⁵⁾	1289 (元)
朱丹溪	本草衍義補遺	必用童便浸. 凡血氣藥必用之, 引至氣分而生血, 此陽生陰長之義也. 卽莎草根也. 一名雀頭香, 大能下氣, 除胸腹中熱. ²⁶⁾	1347 (元)
李時珍	本草綱目	香附之氣平而不寒. 香而能竄. 其味多辛能散. 微苦能降. 微甘能和. 乃足厥陰肝手少陽三焦氣分主藥. 而兼通十二經氣分. 生則上行胸膈. 外達皮膚. 熟則下走肝腎. 外徹腰足. 炒黑則止血. 得童便浸炒則入血分而補虛. 鹽水浸炒則入血分而潤燥. 青鹽炒則補腎氣. 酒浸炒則行經絡. 醋浸炒則消積聚. 薑汁炒則化痰飲. ……得茯苓則交濟心腎. ……乃氣病之總司. 女科之主師也. ⁹⁾	1590 (明)
李中梓	本草通玄	香附子是 곧 治標의 劑인데, 오직 氣가 實하고 血이 아직 大虛하지 않은 者에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恐하건데 損氣하고 燥血하여 더욱 그 疾을 致할 것이다. 世俗이 女科의 仙藥이라는 한마디에 拘泥되고, 아직 發明하여 이에 맞은 者가 없는 것은 可惜하다. ²⁷⁾	1607 (明)

許 浚	東醫寶鑑	<p>莎草根. 性微寒, 味甘, 無毒. 大下氣, 除胸中熱. 久服令人 益氣, 能快氣開鬱. 止痛調經, 更消宿食.</p> <p>莎草, 其根上如棗核者, 謂之香附子, 又名雀頭香. 二月八月採. 『本草』香附主氣分之病, 香能竄, 苦能降, 推陳致新, 婦人血用事, 氣行則無疾, 老人精枯血閉, 惟氣是資. 凡有病則氣滯而餒, 故香附入氣分爲君藥, 世所罕知. 『丹心』</p> <p>香附婦人之仙藥, 蓋婦人性偏多鬱, 此藥能散鬱逐瘀, 採得後, 以稗火燒去毛, 入石臼搗淨, 氣病略炒, 血病酒煮, 痰病薑汁煮, 下虛鹽水煮, 血虛有火, 童便煮過則涼, 積冷醋浸炒則熱, 鹽炒則補腎間元氣. 用檀香佐香附, 流動諸氣, 甚妙. 『入門』¹⁸⁾</p>	1611 (朝鮮)
汪 紘	醫林纂要	<p>貝母·香附子が 보다 解鬱의 藥인데, 婦人에게 더욱 마땅하다. 그런데 貝母는 上焦心肺의 痰鬱을 寒한 것을 보고 主하고, 香附子는 中焦·下焦의 氣血을 主하여 平케한 者에 投藥하는데 마땅히 사람의 稟賦한 陰陽을 살필 것이다. 그러나 香附子를 多服하면 過散하여 元氣를 耗損한다.²⁷⁾</p>	1758 (清)
張德裕	本草正義	<p>香附, 辛味甚烈, 香氣頗濃, 皆以氣用事, 故專治氣結爲病.……好古謂『本草』不言治崩漏, 而能治崩漏, 是益氣而止血也. 頗爲雖不可直認爲益氣, 而確有舉陷之力. 丹溪謂須用童便浸過, 皆嫌其味辛太濃, 以下行爲監製之義.……其實胸脇痺結, 腹笥臌脹, 少腹結痛, 以及諸疝, 無非肝絡不疏. 所謂三焦氣分者, 合上中下而一以貫之, 固無論其何經何絡也.²⁸⁾</p>	1828 (清)
黃度淵	方藥合編	<p>香附味甘消宿食 開鬱調經痛可息. ①卽莎根 ②肝三焦藥兼行十二經 入脈氣分 ③得童便 醋 川芎 蒼朮 良 ④忌鐵 ⑤生則 上行外達 下走外徹 炒黑止血 童便炒入血補虛 鹽水炒入血潤燥 酒炒行經 醋炒消積 薑炒化痰 『本草』²⁰⁾</p>	1884 (朝鮮)

2. 白茯苓 관련 문헌

Table 2. The Contents of the Oriental Medical Literature relating to *Poria cum Radix Pini*

저자	서명	내용	저작년도
陶弘景	神農本草經	<p>伏苓. 味甘平, 主胸脇逆氣, 憂恚, 驚邪恐悸, 心下結痛, 寒熱, 煩滿欬逆, 止口焦舌乾, 利小便, 久服安魂魄, 養神, 不飢延年. 一名伏菟, 生山谷.²⁹⁾</p>	秦漢時代
許 浚	東醫寶鑑	<p>性平, 味甘, 無毒. 療風眩風虛, 止驚悸, 治健忘, 開心益智, 安魂魄, 養精神, 安神定志, 主驚癇.</p> <p>茯苓, 乃採斫訖, 多年松根之氣所生. 蓋其氣味, 壹鬱未絕, 故爲是物. 其津氣盛者, 方發泄於外, 結爲茯苓, 雖有津氣而不甚盛. 止能結伏於本根, 故曰茯神. 『本草』</p> <p>松木, 斫不再抽芽, 其根不死, 津液下流, 故生茯苓·茯神, 因用治心腎, 通津液. 『入門』¹⁸⁾</p>	1611 (朝鮮)
黃度淵	方藥合編	<p>茯神補心善鎮驚 恍惚健忘怒恚情. 卽心木 名黃松節 治偏風脚氣筋攣. 『本草』²⁰⁾</p>	1884 (朝鮮)
申佶求	申氏本草學各論	<p>白茯苓은 老松의 下에서 生하여 松木의 精華를 得하고 土氣를 藉하여 質을 結成하므로 그 氣味가 甘平하여 具薄하며 陽中の 陰에 屬한다. 本品은 鎮靜藥으로서 緩和利尿劑를 兼하여 神經異常興奮·精神不安·心悸亢進·小便不利·怔忡驚悸·煩躁易怒·不寐 等を 治하고 또한 營</p>	1973

	<p>養作用도 한다. 此物의 일체가 茯苓과 더불어 相同하되 다만 茯苓은 脾腎에 入하여 作用하는 것이 많고 茯神은 心에 入하여 作用하는 것이 많다. 方書에 '茯神을 服하면 開心·益智·安魂·定魄한다'고 한 것은 요컨대 心에 入하여 그 痰濕을 導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心·腎을 交通케 함을 말한 것이다.²⁷⁾</p>
--	---

3. 交感丹 관련 문헌

Table 3. The Contents of the Oriental Medical Literature relating to Gyogamdan

저자	서명	내용	저작년도
洪 遵	洪氏集驗方	世人中年精耗神衰. 常言百事心灰. 蓋緣心血少. 而火不能下降于腎. 氣憊而水不能上升于心. 中焦隔絕. 榮衛不和. 所苦者上則心多驚悸. 中則寒痞飲食減少. 下則虛冷遺泄. 甚至於陰痿不興. 臟氣滑等洩. 愚醫徒知峻補下田. 非獨不能生水滋心. 而建僞失真. 立見衰悴. 夭折之由. 當自此始. 悲夫. 所處此方. 廣濟迷流. 然不可忽此藥品. 志心服之半年. 漸屏去一切暖藥. 又不可恃此而馳嗜慾. 然後力習秘固泝流之術. 其神效不可殫述. 質之天地. 切勿妄傳. 居易之祖通奉遺訓云. 子年五十一歲. 遇鐵甕申先生. 授此秘術. 酷志行持. 服食一年大補. 平日所服暖藥. 一切屏盡. 而飲食嗜好不減壯歲. 此藥力之功大矣. 今年八十五. 享天然之壽. 瞑目無憾. 獨此藥傳之. 理當普示羣生. 同登道果. 藥後有湯與牙藥. 可同用之. ⁸⁾	1170 (宋)
龔 信	萬病回春	治諸氣鬱滯. 一切公私佛情. 名利失志. 抑鬱煩惱. 七情所傷. 不思飲食. 面黃形羸. 胸膈痞悶諸證. 神效. 大能升降水火. ¹⁷⁾	1587 (明)
李時珍	本草綱目	凡人中年精耗神衰. 蓋由心血少. 火不下降. 腎氣憊. 水不上升. 致心腎隔絕. 營衛不和. 上則多驚. 中則塞痞. 飲食不下. 下則虛冷遺精. 愚醫徒知峻補下田. 非惟不能生水滋陰. 而反見衰悴. 但腹此方半年. 屏去一切暖藥. 絕嗜欲. 然後習秘固泝流之術. 其效不可殫述. 俞通奉年五十一. 遇鐵甕城申先生授此服之. 老猶如少年. 至八十五乃終也. 因普示羣生. 同登壽域.……薩謙齋瑞竹堂經驗方. ⁹⁾	1590 (明)
王肯堂	證治準繩	治耳中疝臭. 或怒氣上逆. 上下不得宣通. 遂成聾憤方. ³⁰⁾	1602 (明)
許 浚	東醫寶鑑	治諸氣鬱滯. 一切公私佛情. 名利失志. 抑鬱煩惱. 七情所傷. 不思飲食. 面黃形羸. 胸膈痞悶諸證. 神效. 大能升降水火. 『回春』 ¹⁸⁾	1611 (朝鮮)
沈金鰲	沈氏尊生書	治氣鬱 ¹⁹⁾ .	1773 (清)
黃度淵	方藥合編	治諸氣鬱滯 能水升火降 ²⁰⁾ .	1884 (朝鮮)

4. 交感丹의 製法과 降氣湯의 구성

Table 4. The Contents of the Oriental Medical Literature relating to Making Gyogamdan and Kangkitang

	洪氏集驗方類 [*]	萬病回春類 [*]
根據文獻	洪氏集驗方, 本草綱目	萬病回春, 東醫寶鑑, 沈氏尊生書, 方藥合編
構成藥材	香附子 一斤, 茯神 四兩	香附子 一斤, 茯神 四兩
香附子 修治法	新水浸一宿. 去毛. 炒黃	長流水浸三日. 取炒
降氣湯 構成	香附子 半斤, 茯神 二兩, 炙甘草 一兩半	香附子 茯神 甘草 各一錢

주) 類^{*}는 藥材의 구성과 製法이 同一한 것을 의미한다.

5. 東醫寶鑑¹⁸⁾의 交感丹, 加味磁朱丸, 拱辰丹 비교Table 5. The Contents of comparison among *Gyogamdan*, *Gamijajuhwan* and *Gongjindan* in *Donguibogam*

	交感丹	加味磁朱丸	拱辰丹
인용편명	氣門	眼門	虛勞門
구성약재	香附子 一斤, 茯神 四兩	磁石 二兩, 朱砂 一兩, 沈香 五錢	鹿茸 當歸 山茱萸 各四兩, 麝香 五錢
주치증	諸氣鬱滯. 一切公私佛情, 名利失志, 抑鬱煩惱, 七情所傷, 不思飲食, 面黃形羸, 胸膈痞悶諸證, 神效.	眼昏, 久服能明目, 百歲可讀細書.	凡男子, 方當壯年, 而真氣猶怯. 此乃稟賦素弱, 非虛而然. 僭燥之藥, 尤宜速戒. 滋益之方, 羣品稍衆, 藥力細微, 難見功效.
작용	大能升降水火.	磁石法水, 入腎. 朱砂法火, 入心. 沈香 升降水火. 『直指』	但固天源一氣, 使水升火降, 則五藏自和, 百病不生.

6. 氣鬱症 관련 문헌

Table 6. The Contents of the Oriental Medical Literature relating to Ki Stagnation

저자	서명	내용	저작년도
	素問·舉痛論	思則心有所存, 神有所歸, 正氣留而不行, 故氣結矣. ²⁾	戰國時代
	靈樞·本神篇	愁憂者, 氣閉塞而不行. ³⁾	戰國時代
巢元方	諸病源候論	結氣病者, 憂思所生也. 心有所存, 神有所止, 氣留而不行, 故結于內. ⁴⁾	610 (隋)
朱震亨	丹溪心法	氣之初病其端甚微, 或因七情, 或感六氣, 或因飲食, 以致津液不行, 清濁相干, 自氣成積, 自積成痰, 氣爲之鬱, 或痞或痛. 氣血沖和, 萬病不生, 一有佛鬱, 諸病生焉. 故人身諸病, 多生憂鬱. 鬱者, 結聚而不得發越也. 當升者不得升, 當降者不得降, 當變化者不得變化也. 七情傷氣, 鬱結不舒, 痞悶壅塞, 發爲諸病. ⁶⁾	1481 (元)
徐春甫	古今醫統·鬱證門	鬱爲七情不舒, 遂成鬱結, 既鬱之久, 變病多端. ⁷⁾	1556 (明)
孫一奎	赤水玄珠·鬱門	有素虛之人, 一旦事不如意, 頭目眩暈, 精神短少, 筋痿, 氣急, 有似虛證. 先當開鬱順氣, 其病自愈. 宜交感丹, 不效用歸脾湯. ²¹⁾	1584 (明)
龔廷賢	萬病回春	鬱證者, 鬱結而不散也. 氣鬱者, 腹脇脹滿, 刺痛不舒, 脈沈也. ⁵⁾	1587 (明)
張介賓	景岳全書·鬱證	凡五氣之鬱則, 諸病皆有, 此因病而鬱也. 至若情志之鬱, 則總有乎心, 此因鬱而病也. ²²⁾	1624 (明)
葉天士	臨証指南醫案·鬱	鬱則氣滯, 氣滯久必化熱, 熱鬱則津液耗而不流, 升降之機失度. 初傷氣分, 久延血分, ……蓋鬱症全在病者能移情易性. ²³⁾	1776 (清)
李用粹	證治彙報·鬱症	氣鬱胸滿脇痛噫氣腹脹. 七情不快, 鬱久成病, 或爲虛怯, 或爲噎膈, 或爲痞滿, 或爲腹脹, 或爲脇痛, 女子則經閉墮胎, 帶下崩中, 可見百病兼鬱如此. ²⁴⁾	1976

IV. 考 察

氣鬱症을 치료하는 交感丹 관련 문헌에 대한 내용과 고찰을 본론에 나열한 순서로 각 소단원별로 정리하였다.

1. 交感丹

交感丹을 구성하는 약재인 香附子和 白茯苓에 대해 알아보고, 交感丹의 語原과 관련 문헌, 製造法과 服用法 및 服用時 사용되는 降氣湯에 대해 정리·고찰하였다.

1) 香附子

香附子は 방동사니과(莎草科 : Cyperaceae)에 속한 다년생 草本인 香附子 *Cyperus rotundus* L.의 根莖으로 性은 平하고, 味는 辛微甘苦하며, 肝脾 三焦經으로 歸經하고, 理氣解鬱, 調經止痛의 효능으로 肝鬱氣滯, 胸脇脘腹脹痛, 消化不良, 胸膈痞悶, 寒疝腹痛, 乳房脹痛, 月經不調, 經閉痛經 등을 치료한다.³¹⁾

『湯液本草』²⁵⁾에서는 香附子를 血中之氣藥이라고 하였고, 『本草』에는 崩漏를 치료한다는 기록이 없으나 益氣 止血할 수 있으므로 崩漏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血中之氣藥이므로 益氣를 통해서 血症狀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本草衍義補遺』²⁶⁾에서는 童便에 浸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氣分에서 血을 生成하므로 陽生陰長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또 下氣하는 능력이 있어서 胸腹의 熱을 제거한다고 하였다.

『本草綱目』에서는 “香附子は 氣가 平하되 不寒하고 香하고 能히 竄한다. 그 味는 辛이 많아 散하고 微苦는 降하고 微甘은 能히 和하니 곧 足厥陰 手少陽三焦 氣分의 主藥이요, 兼하여 12經 氣分을 通한다. 生으로 사용하면 上으로 胸膈을 行하고 外로는 皮膚에 이르며, 熟한 것은 下로 肝腎으로 走하고 外로 腰足を 散한다.……茯苓을 得하면 心腎을 交濟한다.……氣病의 總司요, 女科의

主師다. 대개 부인은 血으로써 用事를 하여 氣가 行하면 疾이 없고, 노인은 精枯血閉하여 오직 氣를 資할 뿐이요, 소아는 氣가 日充하면 곧 形이 이에 日固한다.⁹⁾”라고 하여, 자세하게 밝혀 놓았는데 다른 약재와의 배합을 언급하면서 茯苓을 얻으면 心腎을 交濟한다고 하여 交感丹에서의 香附子和 白茯苓의 배합에 대해서 밝혀 놓았다.

『本草通玄』²⁷⁾에서는 香附子は 治表의 藥이며 氣가 實하고 血이 아직 大虛하지 않은 사람에게 쓸 수 있다고 하였다.

『本草正義』에는 이전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香附子は 그 味가 甚히 猛烈하고 그 香氣가 상당히 짙기 때문에 항상 氣로써 病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氣가 結하여 생긴 病을 치료한다.……王好古는 『本草』에 子宮出血을 치료한다고 기재되지 않았으나 子宮出血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益氣하고 止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益氣하는 藥이라고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陷沒된 氣를 끌어올리는 힘은 분명히 있다. 朱丹溪는 童便에 담가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모두 그 辛味가 너무 진한 것을 꺼리어 下行으로 通劑한다는 의미이다.……사실은 胸脇痺結, 腹筋脹, 少腹結痛 및 諸疝은 모두 肝絡이 疏通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소위 三焦의 氣分이란 上中下를 합해서 하나로 貫通하는 것으로서 원래 무슨 經, 무슨 絡이라고 論한 것은 아니다.²⁸⁾”라고 하여 이전 의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香附子에 대해서 밝혀 놓고 있다.

이상을 살펴보면 香附子は 단순한 理氣作用 뿐만 아니라, 血中之氣藥으로 益氣하여 止血하므로 崩漏나 月經異常 같은 出血症狀에도 사용이 됨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味가 너무 진한 것을 유의해서 사용하여야 하고, 肝經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白茯苓

白茯苓은 잔나비결상과(多孔菌科 : Polyporaceae)에 속한 진균인 茯苓 *Poria cocos* (Schw.) Wolf의

方塊狀으로 소나무 뿌리(茯神木)를 싸고 있으며, 質은 단단하고 白色이며 性은 平, 味는 甘淡하고, 心脾經으로 歸經하며, 寧心安神, 利水の 효능으로 心虛驚悸, 健忘, 失眠, 驚癇, 小便不利 등을 치료한다.³¹⁾

『神農本草經』²⁹⁾에서는 茯神은 없고 茯苓만을 論하였다. 『名醫別錄』 以前에는 茯苓과 茯神의 区分이 없었기 때문이다. 茯苓에 대해 味는 甘平하다고 하였고, 利小便, 養神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茯神의 효능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名醫別錄』에서 처음으로 茯神을 보충하였지만 主治는 모두 같았다. 그러나 후세의 사람들은 心과 관련된 病證에는 반드시 茯神을 사용하였다. 張元素는 茯神이 아니면 風眩心虛를 除去할 수 없다고 말하였지만 茯苓도 心病을 治療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本草綱目』⁹⁾에서는 말하고 있다.

『申氏本草學』²⁷⁾에서 茯神은 鎮靜藥으로 緩和利尿劑를 겸하여 精神不安이나 心悸亢進, 小便不利 등을 치료한다. 이때 茯苓과 茯神의 区分점은 茯苓은 脾腎에 入하여 작용하는 것이 많고, 茯神은 心에 入하여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茯神은 心에 入하여 心腎을 交通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이상을 살펴보면 白茯神은 利小便하는 효능 외에, 茯苓과 달리 心經으로 들어가서 養神작용을 하여 精神不安이나 心悸亢進 등의 鎮靜藥으로도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交感丹의 語原

交感이라는 말은 周敦頤의 『太極圖說』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萬物生生, 而變化無窮焉”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二氣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면 앞 문장에서 나온 乾과 坤의 氣運이 交感한다는 뜻이 있다. 이는 하늘과 땅의 上下의 氣運이 서로 交感을 한다는 의미인데, 인체에서도 上下의 氣運을 순환시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交感丹의 의미

와 상통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해석으로는 朱喜가 여기에 “陽而健者成男, 則父之道也. 陰而順者成女, 則母之道也. 是人物之始, 以氣化而生者也. 氣聚成形, 則形交氣感, 遂以形化, 而人物生生, 變化無窮矣.”라고 註를 달아서 氣가 모여서 形이 되고, 形과 氣가 交感됨을 말하였다. 氣와 形을 인체 내에서 살펴보면 氣와 血로 대치할 수 있는데, 이는 氣血間의 순환을 돕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氣와 血은 水와 火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이는 交感丹의 效能인 水升火降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交感이라는 用語가 交感丹의 效能과 機轉을 모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水升火降을 통해 上下의 運動과 氣血의 循環을 說明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交感丹

交感丹은 龔信的 『萬病回春』(1587)이 최초의 기록이라고 알려져 왔으나^{15,16,32)}, 이보다 400년 정도 앞선 1170년(宋代)에 洪遵의 『洪氏集驗方』⁸⁾에 交感丹이 최초로 기술되어 있다. 交感丹에 대한 내용 또한 『萬病回春』보다 더 상세하다. 그 내용 중에 交感丹은 洪遵이 만든 처방이 아니고, 俞通奉이라는 사람이 鐵甕城의 申先生에게 준 처방이라고 밝혀 1170년 이전부터 이미 존재 했던 처방임을 알 수 있다.

『洪氏集驗方』에 “사람이 中年이 되어서 精이 消耗되고 神이 衰退하면 心血이 적어져서 心火가 腎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腎氣가 憊하게 되어서 腎水가 心으로 上升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中焦가 막히고 營衛가 調和되지 못한다. 따라서 자주 놀라고, 中焦는 막히며, 食事량은 줄어들고, 역지로 排出시키면 虛冷하게 되고 遺精이 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해지면 陰痿에 이른다. 이때 峻補하는 藥을 쓰면 안 되고 交感丹을 써야한다.”⁸⁾고 하여, 交感丹의 처방구성 원리를 밝혀 놓았다. 이는 交感丹의 기전에 대한 것으로, 氣鬱症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고 어떤 기전으로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句節이다.

『萬病回春』에는 “一切의 諸氣로公私에 情을 떨쳐 버리고 名利에 뜻을 잃고 抑鬱·煩惱하고 七情이 傷한 바 되어 飲食을 생각하지 않고 얼굴이 누렇고 몸이 여위며 胸膈에 諸症이 있는 것에 極히 神效가 있다. 크게 水升火降하는 효능이 있다.¹⁷⁾”고 하였다.

『本草綱目』⁹⁾에는 交感丹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洪氏集驗方』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사람이 中年이 되어서 精이 消耗되고 神이 衰退하면 心血이 적어져서 心火가 下降하지 못하고, 腎氣가 憊하게 되어서 腎水가 上升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주 놀라고, 中焦는 막히며, 飲食物이 消化되어 내려가지 못하고, 억지로 排出시키면 虛冷하게 되고 遺精이 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 때 쓸 수 있는 것이 交感丹으로 神效하다고 하였다.

『東醫寶鑑』¹⁸⁾에는 『萬病回春』과 같은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方藥合編』에는 “治諸氣鬱滯能水升火降.²⁰⁾”이라고 하여 水升火降을 통하여 氣鬱症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申³³⁾은 “인체기능이 정상상황하에서는 腎水와 心火가 升降 協調하여 交通해서 動態의 평형을 유지하게 되어 있지만, 비정상상황이 되면 그 평형이 失去되어 心煩, 怔忡, 不安, 失眠 등의 증상이 야기된다. 이때는 水火 二氣가 升降하여 交感 交通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때의 적응 처방이 바로 本方이다.”라고 하였다.

이상을 살펴보면 交感丹은 精이 消耗되고 神이 衰退하면 心血이 적어져 上下焦인 心과 腎의 氣소통에 障礙가 생기면 발생하는 中焦의 不安, 飲食減少, 胸膈이 막히는 등의 여러 증상에 사용하여, 인체의 水升火降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方劑의 배합을 통한 효능의 변화는 共力作用說과 方向轉換說의 두 가지로 설명이 된다. 共力作用說은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이 配伍될 때 相輔하는 작용이 있어 그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학설이

고, 方向轉換說은 각기 다른 성질과 氣味效能을 가지고 있는 藥物들을 配伍하여 서로의 偏勝을 조절하나 本來의 효능을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효능을 얻어낸다는 학설이다.³⁴⁾ 交感丹은 이 中 方向轉換說에 해당하는데, 香附子는 理氣解鬱, 調經止痛, 白茯苓은 寧心安神, 利水하는 작용을 하나, 配合되면 上下의 氣運을 疏通시키는 水升火降의 作用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5) 交感丹과 降氣湯의 製造 및 服用法

交感丹은 문헌에 따라 그 製造法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洪氏集驗方』⁸⁾에 있는 방법인데, 茯苓 四兩과 香附子 一斤을 쓰는데 香附子는 새 물에 하루 동안 담가서 그 皮毛를 제거하고 黃色으로 볶아서, 茯苓과 함께 가늘게 가루를 만들어 煉蜜로 彈子大 크기로 丸을 지어서 한 알씩 降氣湯으로 服用하라고 하였다. 이 때 降氣湯은 茯苓 二兩과 枳實과 같이 修治한 香附子 半斤, 甘草 一兩半으로 구성된 처방이다.

두 번째는 『萬病回春』¹⁷⁾에 있는 방법인데, 香附子 一斤을 長流水에 3일 동안 담갔다가 꺼내서 볶고, 茯苓 四兩과 합하여 곱게 간다. 이것을 煉蜜로 반죽하여 彈子大 크기의 丸으로 만들어서 한번에 1알씩 降氣湯으로 잘 씹어서 먹는다고 하였다. 이 때 降氣湯은 枳實과 같이 修治한 香附子, 茯苓과 甘草가 각 1錢씩으로 구성된 처방이다.

『本草綱目』⁹⁾에는 『洪氏集驗方』과 같은 製造法이 소개되어 있고, 『東醫寶鑑』¹⁸⁾과 『沈氏尊生書』¹⁹⁾, 『方藥合編』²⁰⁾은 모두 『萬病回春』과 같은 製造法을 싣고 있다.

交感丹의 두 製造法 모두 용량은 동일하지만 香附子의 修治法에서 그 차이가 나타난다. 『洪氏集驗方』에서는 새 물에 하루를 담가 쓰라고 하는데, 이는 하루 정도 물에 불려서 香附子의 皮毛를 除去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萬病回春』에서는 長流水에 三日을 담그라고 하였는데, 이는 皮毛의 除去와 더불어 멀리서부터

내려온 長流水의 기운을 藥에 포함시켜 水火를 運行하게 하는 行氣力을 증강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降氣湯을 살펴보면 처방 구성은 동일하지만 용량의 차이를 보여준다. 『洪氏集驗方』에서는 香附子 半斤, 茯苓 二兩, 甘草 一兩半으로 구성되어, 『萬病回春』보다 香附子の 量이 많다. 香附子の 量을 늘려서 行氣力을 強化한 것인데, 이는 『萬病回春』에서 長流水에 三日을 담가 長流水의 運行시키는 氣運을 藥에 포함시키려는 의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萬病回春』의 降氣湯은 香附子, 茯苓과 甘草가 각 1錢씩으로 구성되어 香附子の 量이 적어서 『洪氏集驗方』 보다는 약한 의미가 부여되지만 長流水에 의한 작용으로 理氣作用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降氣湯에는 交感丹에는 없던 甘草가 추가되는데, 이는 交感丹이 中焦에서 作用하여 水와 火의 調和를 더욱 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공통적으로 煉蜜을 사용하여 丸을 지으라고 하였는데, 이는 氣鬱症에 의한 中焦의 虛冷을 없애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2. 加味磁朱丸, 拱辰丹과 水升火降 機轉 比較

交感丹 외에도 水升火降의 機轉을 가지고 있는 處方으로는 加味磁朱丸과 拱辰丹이 있다.

加味磁朱丸은 『東醫寶鑑』에서 “眼昏을 치료하며 久服하면 明目하는 處方으로, 構成藥物인 磁石은 水의 象을 받아 腎으로, 朱砂는 火의 象을 받아 心으로 들어가며 沈香은 水火를 升降시킨다.”¹⁸⁾고 하였다. 이 처방은 交感丹과 같이 水升火降 作用을 하지만, 上下의 不通으로 인하여 上焦에 熱이 발생하여 눈이 어지러운 경우에 사용된다.

拱辰丹은 『東醫寶鑑』에서 “壯年이 眞氣가 弱한 것은 본디 稟賦가 虛弱하여 발생한 所致이니 燥한 藥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 단지, 天源의 一氣를 굳게 해야 하니 이리하면 水로 하여금 升케하

고, 火로 하여금 降케하니 百病이 생기지 않는다.”¹⁸⁾하였다. 여기에서의 燥藥은 香附子와 같은 燥性을 가진 약과 동일하니 警戒하라고 한 것은 鹿茸과 當歸의 滋潤하는 藥으로 天源을 補하라는 말과 같다. 따라서 이 처방은 氣鬱로 막힌 것 보다는 元眞을 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세 처방은 모두 水升火降 作用을 한다. 그러나 그 형식에 차이가 있는데, 交感丹은 氣鬱症으로 인해서 中焦에 氣가 몰려서 上下의 疏通에 장애가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처방으로, 虛症의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 加味磁朱丸은 氣鬱의 症狀이 더욱甚해져서 中焦가 막힘으로 인해서 上焦에 熱이 생겨서 눈에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 쓸 수 있다. 拱辰丹은 元眞이 不足한 虛症으로 氣運이 不足한 경우에 사용하여 氣를 補充하여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처방이다. 이렇게 水升火降의 作用을 하는데도 각기 다른 機轉으로 作用하므로, 氣鬱症에는 交感丹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3. 氣鬱症과 精神的 Stress

생각이나 고민이 많아지면 正氣가 運行하지 못하여 한 곳에 몰리게 되어 흠어지지 않는 것을 氣鬱症이라고 한다.^{2,3,4,5)} 氣鬱症은 위와 같은 七情 외에도 六氣, 飲食 등에서도 오게 되는데, 津液이 疏通하지 못하여 痰이 되고 이것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픈 증상을 유발시키고, 오래되면 다양한 질병양상으로 변화한다.^{6,7)} 氣鬱症은 氣滯症이라고도 하는데 氣滯가 오래되면 반드시 熱이 발생하고, 이 熱이 津液을 損傷시켜서 흐르지 못하게 하여 升降作用에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²³⁾ 따라서 숨쉬기 힘들거나, 가슴이 그득하고, 옆구리가 당기고, 배가 불러오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女子는 月經이 끊기고, 流産을 하게 되고, 帶下나 崩漏가 생기는 등의 많은 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²⁴⁾

氣鬱症은 현대의 Stress성 질환의 양상과 유사하다. Stress라는 용어는 1950년경 Hans Selye³⁵⁾에

의해 의학에 소개되었는데¹²⁾, Stress는 신체에 가해진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한 체내의 반응과 상해에 대한 防禦反應을 의미한다. 이런 Stress 反應을 유발하는 인자를 Stressor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細菌, 藥物, 傷處, 火傷, 寒冷, 暑熱 등의 생물학적, 기후학적, 물리화학적인 인자 외에도 긴장이나 감정적 갈등 같은 정신적인 인자도 포함된다.³⁶⁾ 이런 多様な 因子 중에서도 특히 정신적 인자에 의한 것이 氣鬱症과 연관이 된다.

精神 Stressor에 의한 질병발생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직접 五臟을 傷하여 內臟의 病理變化를 일으키는 경우이고, 둘째는 臟腑氣機에 영향을 미쳐서 升降協助 관계를 逆亂하게 하는 경우이다.³⁷⁾ 두 번째 경우에서처럼 臟腑의 氣機 升降에 障礙를 미치는 것은 앞서 記述한 氣鬱症의 기전과 거의 동일하다. 대부분의 정신적 Stress는 오장을 직접 傷하기 以前에 氣機의 升降運行에 障礙를 미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흔히 Stress에서 起因한다고 하는 症狀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때 交感丹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정신적 Stress 질환의 치료에 交感丹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4. 鍼 처방과의 연계 방안(四關과 연관성)

한의학 치료에서는 藥과 鍼을 同時에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氣鬱症에 交感丹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鍼 처방으로는 交感丹 같이 局所的 疾患에 限定되지 않고 全身的인 氣 運行을 조절해 주는 四關을 들 수가 있다.^{38,39,40,41)}

四關은 合谷과 太衝으로 구성된 鍼 처방인데, 단순히 두 經穴의 合이 아닌 하나의 處方으로서 상승작용을 가져온다.⁴²⁾ 『醫學心悟』⁴⁰⁾에서는 四關이 氣血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각종 疾病의 주요 處方이라고 하였고, 『鍼灸學』에서는 “治關格, 氣塞, 消化不良, 霍亂에 特效穴.”⁴¹⁾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앞서 말한 氣鬱症의 症狀과 相通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증상은 氣 순환에 장애가 생겨서 中焦에 氣가 鬱滯되어서 생기는 것으로 四關을 통해 四肢에서 氣 순환을 시켜서 中焦의 氣鬱을 풀어준다고 할 수 있다.

交感丹과 四關은 모두 국소적인 작용보다는 전신적인 氣의 조절에 관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 처방 구성상 공통점이 있는데, 交感丹은 두 藥材의 配合를 통해서 上下를 순환시키는 작용이 강화되고, 四關은 두 穴자리의 配合를 통해서 氣血의 전반적인 조절을 가능하게 하므로 交感丹과 四關을 배합하면 人體의 氣 순환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此後에 交感丹과 四關의 배합이 전신적인 氣 순환에 작용하여 氣鬱症을 치료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V. 結 論

여러 문헌을 통한 조사의 결과로 정신적 Stress 질환, 加味磁朱丸, 拱辰丹, 四關과 關聯되어 氣鬱症을 치료하는 交感丹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氣鬱症은 臟腑의 氣機 升降에 障礙를 가져와서 多様な 症狀을 惹起하는 現代의 精神的 Stress 疾患과 密接한 聯關이 있다.
2. 『洪氏集驗方』에 최초로 기술된 交感丹은 香附子和 白茯苓으로 구성되며 水升火降 작용을 통하여 氣機의 升降을 정상화시켜서 氣鬱症을 치료한다.
3. 현대의 정신적 Stress 질환의 치료에 交感丹을 광범위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水升火降을 조절하는 처방 가운데서도 加味磁朱丸은 上熱로 발생하는 眼昏을 치료하고, 拱辰丹은 天源一氣의 不足을 보충하여 작용면에서 교감단과는 차이가 있다.
5. 交感丹과 四關의 배합을 통해 氣鬱症의 치료

효과가 상승되는 것을 차후에 실험을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參考文獻

1. 朴贊國. 臟象學. 서울: 成輔社, 1992: 30-1.
2. 李慶雨. 編注譯解3 黃帝內經素問. 서울: 여강출판사, 2000: 571-6.
3. 李慶雨. 編注譯解3 黃帝內經靈樞. 서울: 여강출판사, 2001: 17-9.
4. 南京中醫學院校釋. 諸病源候論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459.
5. 龔廷賢.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108
6. 朱丹溪. 丹溪醫集. 丹溪心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344.
7. 徐春甫. 古今醫統秘方大全. 서울: 金剛出版社, 1982: 2177.
8.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 洪氏集驗方卷第一.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7-8
9. 李時珍. 圖解本草綱目. 台北: 文友書店印行, 1973: 518.
10. 조홍건. 스트레스와 火病의 한방치료. 서울: 열린책들, 1991: 49-50.
11. 尹定鎔. 神經精神病的 漢方治法. 서울: 東園出版社, 1985: 48-9.
12. 문류모. Stress에 관한 문헌적 고찰.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991: 2(1): 38-50.
13. 고태준, 이상용. STRESS 현상과 관련된 제기증(諸氣證)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의학논문집. 2000: 8(2): 317-27.
14. 엄현섭. 정서와(情緒)(칠정(七情)) Stress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 동서의학. 1992: 17(4): 5-20.
15. 황현순, 류영수. 交感丹의 투여가 STRESS에 의한 면역반응의 억제에 미치는 영향.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997: 8(2): 13-24.
16. 金起代, 鄭大奎. 交感丹과 蘇合香元 投與後 抗STRESS 關聯 HORMONE 含量 變化에 對한 實驗的 考察.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993: 4(1): 121-34.
17. 龔廷賢. 國譯萬病回春. 서울: 癸丑文化社, 1997: 329.
18. 許浚. 東醫寶鑑. 서울: 여강출판사, 2001: 95-6, 3019-3020, 3056.
19. 謝觀. 中國醫學大辭典. 서울: 일중사, 1982: 957.
20. 黃度淵. 辨證論治 方藥合編. 서울: 南山堂, 2000: 267, 355, 379-80, 418, 440-1.
21. 孫一奎. 赤水玄珠集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462.
22.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鼎談, 1999: 385.
23. 葉天士. 臨証指南醫案. 서울: 鼎談, 1998: 472-3.
24. 李用粹. 證治彙報. 台北: 旋風出版社, 1976: 20, 108-9.
25. 王好古. 湯液本草: 中國醫學大系13. 서울: 圖書出版鼎談, 942.
26. 朱丹溪. 丹溪醫集. 本草衍義補遺.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90.
27. 申佶求. 申氏本草學各論. 서울: 壽文社, 1988: 68-9, 486-8.
28. 金昌玟, 辛民教, 安德均, 李京淳 外. 完譯 中藥大辭典. 서울: 鼎談, 1997: 4756.
29. 王筠默 등. 神農本草經校證. 서울: 醫聖堂, 1988: 213.
30. 江克明, 包明蕙. 核訂 方劑大辭典. 서울: 醫聖堂, 1991: 444.
31. 康秉秀 外. 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8: 303, 354-5.
32. 張鎬鉉, 文炳淳, 金世吉. 交感丹 煎湯液이 心臟機能에 미치는 影響. 원광한의학. 1992: 2(1): 415-28.

33. 申載鏞. 方藥合編解說. 서울: 成輔社, 1988: 146.
34. 윤용갑. 동의방제와 처방해설. 서울: 醫聖堂, 2002: 30-3.
35. Selye, H. Stress. Canada montreal: Acta Inc., 1950: 2, 9-13.
36. 尹定鎔. 神經精神病의 漢方治法. 서울: 東園出版社, 1985: 45.
37. 羅昌洙 外17人教授. 한의학총강. 서울: 醫聖堂, 2001: 459-63.
38. 崔容泰, 李秀鎬. 精解鍼灸學. 서울: 행림출판, 1985: 738.
39. 莊育民. 針灸經穴之運用. 臺北市: 協林印書館, 1981: 14.
40. 孫震寰, 高立山. 鍼灸心悟.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185.
41. 崔容泰 外. 鍼灸學. 서울: 集文堂, 1991: 668.
42. 李宗錫, 高炯均, 金昌煥. 四關穴에 對한 根據 및 臨床的 意義. 대한침구학회지. 1992: 9(1): 109-17.